

조경수목산책 35

- 비자나무(1) -



임 경 빈
농학박사

일곱, 여덟 때 동네 아이들이 모이면 흔히들 나무요를 외우고선 서로들 토실토실 아름답게 피어나는 분홍빛 얼굴들을 바라보고 웃어대면서 좋아했던 때가 그리 멀지도 않은 것 같

은데 한량없는 정기를 몸 안에 담고 보낸 시간들이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호기심이 즐거움에 반죽이 되어 서로 도와 커 가는 시대였다.

가자가자 감나무
오자오자 옷나무
낮에도 밤나무
십리절반 오리나무
칼을 대어 피나무
죄 없이 비자나무

이러한 나무의 동요는 더 이 어진다.

그리고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사로 새겨보곤 했다.

「그 나무 난 몰라」라 하는 것도 많았다. 그래도 이 나무요를 우리는 외어댔다. 그 중 피나무와 비자나무 같은 것은 우리 동네에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러한 동요가 있었다는 것은 이 동요가 전국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을 뜻해준다. 전해지고 전해져서 온 나라로 퍼져나간 것으로 짐작된다.

「그 나무 우리동네 어디에 있지?」

「난 몰라」

「그 나무 어떻게 생겼지?」

「난 몰라」

그래도 우리는 이러한 동요를 좋아했다.

왜 시(詩)를 공부하지 않는가?(何莫學夫詩?)

새, 짐승, 풀, 나무 이름을 많이 알게 될 것이다.(多識於鳥獸草木之名)

그래서 이러한 동요가 힘을 얻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중 비자나무를 들고나서 보기로 한다. 죄 없이도 비자나무는 극히 상식적 테두리 안에서의 해석으로 끝내야 할 것이지만 생각을 연장시켜보면 흥미있는 구석도 있다. 죄 없이 왜 빌자는



▲비자나무 잎의 배열

건가. 지난날의 허약한 백성계급의 억울한 그림자를 반영시킨 것일까. 계급사회에 오히려 나온 권력의 부조리의 단면이 있어서 그러했을까. 죄 없어도 빌어보는 그 시대의 정신구조가 한 조각 우리를 슬프게 만들어 준다.

사실 따지고 보면 죄 없는 사람이란 어디에 있겠는가. 온통 모든 인간은 잘못 또는 죄의 덩어리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본성(本性)을 따지는데 성선설(性善說)과 성악설(性惡說)이 있다고 한다. 인간은 원래 착한 것을 근본으로 해서 태어났지만 후천적으로 나쁘게 되어 말하자면 죄인으로 되었다. 이것을 다스리고자 교육과 훈육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성선설의 요지이다. 성악설은 인간은 원래 악한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기에 인간은 후천적으로 마음 다스림이 요구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성악설의 요지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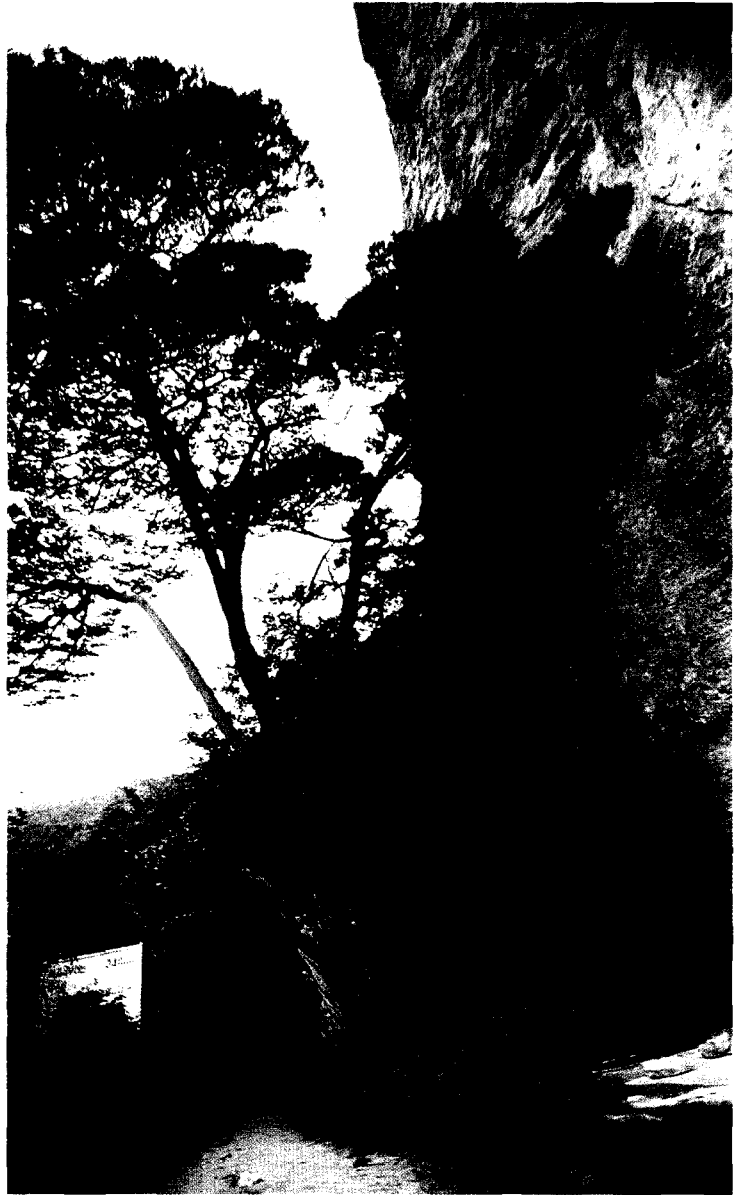
필자의 아버지는 성선설을 좋아하시고 어린 나에게 다음과 같은 비유로 성선설의 타당성을 설명하신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어느 때 흉악한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 보니 어린아이가 영금영금 우물 쪽으로 기어가는 것이 눈에 띈다. 그 순간 그 아이를 그대로 두면 정녕 우물 속으로 떨어져 죽을 판이었다. 이때 그 흉악범은 그 아기를

잡아 우물에 빠질 찰나에 구조를 했다. 이것은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착한 소성(素性)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에 편을 드는 바탕을 제공한다.

죄 없이도 비자는 그 마음이 지극히 온유하고 선량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서도 말했지만 인간은 원래 죄를 안고 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신앙적 풀이도 있어서 「오늘 와서 어제를 생각하니 이미 그것들은 잘못이었네(覺今是而昨非)」한다면 잘못을 깨쳤다면



▲선운사 마애불상 앞의 비자나무. 1992. 9. 2



왼쪽: 병영면의 비자나무. 천연기념물 39호 1998. 4. 22
오른쪽: 사천군양면의 비자나무. 천연기념물 287호



183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지는데 비자(榧子)를 설명하면서 종자(子)는 대추에 닮고 먹을 수 있다고 했고 별명으로 야삼(野衫), 옥비자(玉榧子), 피자(榧子), 적과(赤果), 옥산과(玉山果) 등이 있다고 했다.

이시진(李時珍)의 본초강목에도 비실(榧實)조에 나와있는데

피자(榧子)라고도 하는데 피(榧, 비자나무 피로 읽는다.)자의 발음은 피(彼)자와 같다고 했으며 적과(赤果), 옥비(玉榧) 등 한자명은 물명고와 다름이 없다.

이시진은 쓰

기를 피(榧)는 비(榧, 나무이름 비, 비자나무 비)로 써도 된다고 하였다. 또 (斐)로 쓰고 이것을 비자나무 비로도 읽는다. 이 나무를 이시진은 문목(文木, 무늬가 아름다운 나무라는 뜻)으로도 말하는데 이것은 이 나무의 목재가 비연(斐然, 아름답고)하고 장채(章采)가 있는 까닭으로 얻은 이름이며 비(榧)라고 했다한다. 옥산과(玉山果)라고 하는 것은 옥산이란 지방에서 나는 것이 질이 좋다고 해서 얻은 명칭이다.

소동파의 시에 「저 아름다운

벌어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무심코 외어대는 동요가 이러한 심층적(深層的) 깨달음 위에 서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린이들의 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힘을 가졌다고 생각해서 범연한 피상(皮相)으로만 흘러 넘길 것만도 아닐 것 같다.

나무요는 깊이를 가진 어린이들의 나무문화의 단층이었다고 생각한다.

비자나무로 부르게 된 유래

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밝히기가 어렵다. 모든 나무에 있어서 그러한 것이지만 그러할 것이라는 추측 말하자면 설(說)을 내세울 뿐 누구나 그대로 받아들일 나무이름이란 거의 없다시피 해도 좋다. 그러나 그 중에는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도 적지 않다.

필자는 이미 본인의 저서 나무백과(3)에 있어서 이 점 약간 언급한 적이 있다.(1988)

비자나무에 대한 유희(柳僖)의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의 저서 물명고(物名考)는

옥산과, 찬란한 아름다움이 금반(金盤) 위에 놓여 있다.]는 대목이 있는데 이때에도 옥산 지방산의 비자를 지적함이다.

우리 나라에서 이 나무를 「비자나무」로 부르는 것은 한자명 비자(榧子)를 그대로 읽은 데에서 온 것으로 짐작한다.

여기에 있어서 이곳 필자는

위: 병영면의 비자나무. 천연기념물 39호
1998. 4. 22

아래: 해남연동리의 비자나무 숲



비(榧)에 대하여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고자 한다. 즉 왜 이 나무에 비(榧)자가 주어지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아름답다는 한자 표현 비연(斐然)에서 비(非)자를 가져온 것일까. 이것은 너무나 비약적인 견강부회(牽強附會)이다. 비자나무의 잎은 특히 작은 곁가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잎이 좌우양측으로 정연하게 두 줄로 배열한다. 비자나무에 닮은 주목도 잎 배열이 그러하지는 못하다. 그 잎의 배열상태를 상형(象

形)적으로 표현한다면 非로 된다. 이것은 매우 들어맞는 표현이다. 그래서 비자나무 비(榧)자에 비(非)를 넣은 것으로 해석하자는 것이다. 이보다 더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는 힘들다. 비(匪)자가 있다. 이 자는 원래 뚜껑이 두 쪽으로 발랑 퍼지는 대나무로 만든 상자를 표현하는 글자이다. 비자나무의 잎이 두 개의 뚜껑처럼 좌우로 벌려진 것을 상상하면 좋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榧나 榧나 모두 비자나무 비(榧)와 같은 뜻으로 해석하고 읽는다. 이것은 비

자나무의 잎의 배열에 아이다어를 얻은 상형문자이다.

이시진은 비자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을 더하고 있다.

「비자나무는 깊은 산중에 나며 흔히 야삼(野杉)으로 말하는 것이다. 나순(羅順)의 이아익(爾雅翼)에 보면 「비자나무(榧)는 삼(杉)에 닮아있으나 삼과는 다르다. 피(榧)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목재는 아름다운 무늬가 있으며 사람이 매우 느리다. 나무에는 암나무와 수나무의 구별이 있어서 수

나무에는 꽃이 있고 암나무에는 열매가 맺는다. 겨울철에 노란색의 둥근 꽃이 피고 열매는 크기가 대추만하다.(또는 올리브열매 정도라고) 핵(核)에는 뾰족한 돌기를 가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그 인(仁)은 먹을 수 있다. 한 나무에서 많은 종자를 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화한삼재도회에 피(楸)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때에는 이것이 비자나무로 단정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다. 그 연유를 캐기는 이곳에서는 이른다.

삼재도회에 나오는 비자(榧子)의 그림은 잎의 우상배열(羽狀配列)만이 닮아있다.

비자나무의 용도는 종자와 목재를 들 수 있다. 종자의 약효로서 근육을 강건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며 몸이 가벼워지고 모발을 강하게 한다고 했다. 화한삼재도회에는 비실(榧實)은 오

치(五痔), 치핵(痔核), 탈항(脫肛) 등 5종류의 치의 병, 치질(痔)을 치유한다고 한다. 치라는 것은 항문 주위나 내부 또는 직장에 구멍이 생겨 고름이 나오는 악성치질을 말한다.

이러한 약효에 아울러 비자나무의 목재는 질이 뛰어나며 우수하고 아름다워 최고의 귀중재로 치부되고 있다. 기록을 보면 비자나무는 수고 25~30m, 가슴높이줄기직경 2m까지 자랄 수 있다고 했으나 자람은 매우 느린 편이다. 이 정도로 자라자면 500년의 세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정의 기록도 있다. 일본에서의 조사기록이지만 250년생의 비자나무 흉고부위의 원판(圓板)에 있어서 측정된 것에 의하면 연륜폭은 0.4-2.6mm의 범위에 있었고 평균 0.9mm였다고 한다. 일본은 온난다습한 까닭에 우리 나라

의 비자나무보다 자람이 더 느리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 나무의 자람이 얼마나 느린가를 짐작할 수 있다.

비자나무는 변재(邊材)와 심재(心材)의 구별이 약간 명료하지 못하고 변재는 황백색이고 심재는 갈색을 띤 노랑이다. 조재(早材, 일명 春材)부터 만재(晩材, 일명 夏材)에 이르는 추이는 극히 느리다.

그리고 또 만재세포의 벽이 두꺼워지지 않고 나이트 부근에 가서 서서히 편평(扁平)해지며 세포 3개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목리(木理)는 대체로 통직하고 결이 정밀하고 닳으면 광택이 나며 또 특유의 향기를 가진다.

비자나무의 목재는 건조에 따른 수축율이 비교적 적고 뒤틀림이 또한 적다. 그리고 썩음에 대한 내성이 강하다. 그래서

왼쪽:진도 임회면의 비자나무. 천연기념물 111호 1998. 4. 27
오른쪽:진도 임회면의 비자나무. 천연기념물 111호 1998. 4.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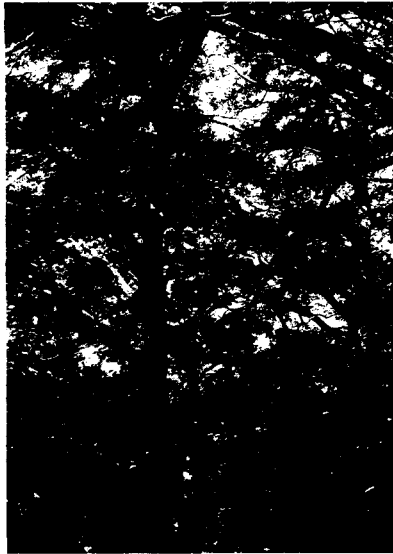
보존성이 높고 습기에 견디는 힘이 강해서 일본에서는 물통 또는 육실용의 목재로 숭상되었다. 그리고 칠기 목지(木地)로 상용되고 염주, 불상의 조각재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무엇이든 해도 비자나무 목재의 용도는 바둑판으로 그 명성이 뛰어나 있다. 바둑판의 크기는 길이 45cm, 폭 42cm, 두께 12cm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만한 바

둑판을 얻자면 상당히 큰 원목을 필요로 한다. 그 중 좋은 바둑판을 얻자면 직경이 100cm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 수령 400~500년의 비자나무라야 되는 셈이다.

그리고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목재건조의 과정이 있다. 천연으로 함수율 30%까지 건조시키자면 근 1년간이라는 긴 세월이 요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3~5년간의 건조도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고주파로서 인공건조시키는 시도도 있어서 건조의 단기화가 시도되고 있다.

비자나무가 먼 옛적에는 어떻게 이용되었을까하는 문제에 부딪히는 것도 흥미있는 일이다. 전에 필자는 주목나무를 다루면서 지난날 유럽에서는 활을 만드는데 크게 이용되었다는 것을 소개한 적이 있다. 특히 독일산의 주목으로 영국에



왼쪽:해남 연동리의 비자나무. 1992. 5. 10 오른쪽:해남 연동리의 비자나무. 1992. 5. 10

서 대량의 활을 만들었다는 역사적 기록을 이야기했다. 비자나무는 주목과 함께 주목과에 소속되는 나무이다. 분류학적으로 극히 근사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목재의 성질에 있어서도 유사한 점이 있을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일본에 있어서 유적발굴의 결과 흥미있는 사실이 얻어지고 있다. 즉, 일본 역사의 시대구분 중 초기의 일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시 대	시 작(서기)
구석기(약 15만년간)	1만2천년 전
조오몽(繩文)	BC 300
야요이(彌生)	서기 350까지

그런데 조오몽시대와 야요이시대의 유적부터 비자나무로 만든 활이 많이 출토되었다는 것이다. 조오몽시대가 시작된 것이 약 1만2천년 전인데 일본

에 있어서는 무척 예전부터 비자나무 목재가 비교적 많아서 특히 활을 만드는데 쓰여진 것으로도 되어있다. 유럽의 주목나무와 함께 주목과 속의 나무로서 흥미 있는 인연관계라고 생각된다. 사실은 비자나무보다도 개비자나무가 활제작 용재로서는 더 적격이라고 한다. 느티나무, 산뽕나무도 궁재(弓材)로서 이용되었다. 비자나무는 일본에 있어서는 통나무배를 만드는 데에도 또 불상을 만드는 데에도 많이 쓰여졌다고 한다. 그것은 비자나무의 재질이 뛰어난데 있다. 비자나무로서는 단궁(短弓)을 만들었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조선조시대 제주도 비자나무 널판자가 공물로 진상된 바 있는 데 귀중한 기구재 또는 가구재로 이용된 것으로 안다. **조경수**